口訣 硏究의 現況과 課題

高正儀

요 약

한국에서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한자를 이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는 차자표기법이 발달되었다. 이 중 구결은 한문을 국어식으로 읽는 독법을 보인 것으로 읽는 방법에 따라 順讀口訣과 釋讀口訣로 구분되었다. 순독구결은 한문을 원문대로 읽으면서 그 구두에 해당하는 곳에 吐를 넣어 읽는 것으로 고려조와 조선조를 거쳐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釋讀口訣은 이와 반대로 한문을 한국어의 어순으로 조정하여 읽는 것으로 1975년 발견된 舊譯仁王經을 비롯한 5종의 자료가 발굴되었고, 이들의 문자체계와 음운론적·문법론적 특징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언어사실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2000년 7월 초순에 새로운 유형의 석독구결인 角筆 點吐釋讀口訣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11세기의 국어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현재 4종 12권이 발견되었고 이들 자료 중 일부는 연구자료로 공개되었다. 그 동안 각필구결에 나타난 점토와 부호의 종류와 기능이 밝혀지고, 이들의 한자상의 위치와 그에 따른 點圖의 재구, 그리고 점토구결과 일본의 훈점과의 관계 등이 논의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70년대 이후 이루어진 구결 연구 성과를 字吐釋讀口訣과 點吐釋讀口訣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구결 연구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더듬어 보았다.

*핵심어: 구결, 순독구결, 석독구결, 자토, 점토, 부호, 점도

1. 머리말

한국에서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한자를 이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는 借字表記法이 발달되었는데 이는 吏讀, 鄕札, 口訣, 語彙表記로 분류되어 왔다. 口訣은 한문을 한국식으로 읽는 독법으로 문장 구조에 맞추어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요소를 해당 句讀에 넣어 읽는 한문 독법이다. 이 구결은 흔히 順讀口訣[1]과 釋讀口訣로 나뉘어 왔다.

順讀口訣이란 한문을 原文의 순서대로 音讀하면서 그 句讀에 해당되는 곳에 우리말의 토를 넣어 읽는 독법이고 釋讀口訣은 한문에 토를 달아 우리말로 새겨 읽는 독법이다. 이 중 순독구결은 12세기 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13세기 이후의 자료들이 전하고 있으며 조선조를 거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 구결은 으레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75년 『舊譯仁王經』 구결이 공개되고 이것이 석독구결임이 밝혀짐으로써 구결은 이를 읽는 방법에 따라 순독구결과 석독구결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2000년 7월 角筆로 기록된 새로운 양식의 點吐口訣이 발견되고[2] 그동안 상당한 연구업적들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고는 『구역인왕경』의 발견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결 연

---

1) '순독구결'은 '음독구결'이라고도 한다. '順讀'이란 한문의 어순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징에 따른 것이고 '音讀'이란 한문 원문의 한자를 훈독하는 일이 없고 항상 음독한다는 특징에 주목한 명칭이다.

2) 한국에서 각필구결이 발견된 것은 2000년 7월초로 小林芳規교수 일행이 구결학회 임원들과 한국의 각필을 조사하던 중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8에서 각필로 찍힌 구결을 발견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각필의 발견 경위에 대하여는 남풍현(2000a) 참조.

구의 성과를 조감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이루어진 구결의 연구 성과는 이미 남풍현(1990a), 이승재(1995c), 정재영(1997b) 등에서 개괄된 바 있다. 이 중 남풍현(1997b, 1999a)에서는 구결의 연구사를 50년대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나누어 논의한 바 있다. 본고는 이들의 논의에 그 이후의 연구 성과를 보충하여 70년대 이후의 구결 연구의 현황을 차자구결 연구의 성과를 중심으로 개관하기로 한다.

2. 『구역인왕경』의 발견과 석독구결의 연구

2.1. 석독구결 자료의 종류와 연대

한국에서 구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진 것은 1975년 『구역인왕경』 구결이 공개된 이후이다. 그 이전인 광복 이후 70년대초에 이르기까지는 구결에 대한 무관심과 자료의 부족으로 구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3] 이 시기의 중요 연구 업적으로는 이숭녕(1961)을 들 수 있는데 이 글은 불경언해에 나타나는 구결 '-샷다'와 언해문의 대응 형태 '-시놋다, -시도다, -시리로다'를 비교하여 그 기능을 밝힌 것으로 구결 자료를 국어문법의 변화의 논증 근거로 삼음으로써 구결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다(남풍현 1990).

구결에 대한 관심과 연구 업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이다. 최범훈(1972)에서 필사본 『논어』(1788년 필사)와 『語·庸·學正文』(1905년 필사)에 나타난 약체기입토(148종)의 독음과 원자가 정리된 것을 비롯하여 많은 구결 자료들이 발굴되고 이들에 나타난

3) 광복 이전의 구결에 대한 논의는 소창진평, 김윤경, 최현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사에 대하여는 남풍현(1999:44-50) 참조.

구결자의 원자와 표기법 등이 논의되었다(최범훈 1979, 1982. 박희숙 1976, 1978. 심재기 1976. 안병희 1976a, 1977. 유탁일 1977. 정경주 1982. 홍윤표 1986).[4]

이 중 안병희(1977)는 15, 16세기 印刷吐 刊本들과 임란 이전의 記入吐 자료를 대상으로 109자의 구결자의 문자체계와 그 용법을 밝힌 것이다. 이로써 이 시기의 순독구결의 구결자의 종류와 표기법의 윤곽을 조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홍윤표(1986)은 19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小學諸家集註』에 실린 약체토와 독음 자료를 다룬 것으로 이를 통해 19세기에 경서 구결이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에서도 이루어져 일본에 있는 한국본 『地藏經』 4종에 쓰인 인쇄토와 기입토(中村完 1977), 16세기 간본 『禮記集說大全』의 기입토(藤井茂利 1980), 한국과 일본 내의 인쇄토 문헌 20종과 기입토 문헌 100여 종의 구결(菅野裕臣 1981[5]) 등이 검토되었다.

구결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온 것은 1975년 심재기(1975)에서 공개된 『구역인왕경』과 그 구결이었다. 이 자료는 차자표기 연구 전반을 활성화시킨 획기적인 자료로 특히 구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말·선초의 많은 구결 자료들이 발굴·소개되었고 석독구결 자료도 4종이나 발굴되었다. 이들은 11세기말 내지 12세기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華嚴經疏』 권35를 비롯하여 『華嚴經』 권14, 『金光明經』 권3, 『瑜伽師地論』 권20

4) 이들의 연구 내용에 대하여는 남풍현(1999:51-52) 참조.

5) 菅野裕臣(1981)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인쇄토 문헌 20종과 기입토 문헌 100여종을 佛書, 心經附註, 地藏經, 正字吐經書, 略體吐經書, 기타로 분류하고 그 차자들을 정리한 것이다. 문헌에 따라 동일음의 표기에 대응하는 자자들의 일람표를 만들고 다시 차자의 자형 200여 종에 대하여 그 정자, 표음, 출전을 일람표로 만들었다. 약체자들이 필사에 의하여 개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까지도 모두 목록화하였고 구결의 차자들이 이두의 차자에서 온 것으로 모앗다.

등이다. 이 외에 안병희(1987)에서는 均如의 記釋 중 『釋華嚴教分記圓通鈔』(권3)에 남아있는 석독구결이 발굴·소개되었다. 이것은 10세기 중엽의 석독구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다. 그러나 한문을 새겨 읽을 때 들어가는 토를 몇 개 보여줄 뿐 완전한 석독구결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 석독구결 자료로서는 이용하기가 어렵다.[6]

90년대에 들어 『구역인왕경』과 같은 석독구결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1993년 『華嚴經』 권14(남권희 1993a)와 『瑜伽師地論』 권20(남풍현 1993)이 발굴·소개되었고 이어서 1994년에 『華嚴經疏』 권35(남권희 1994a)와 『金光明經』 권3(남권희 1994b)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구결 연구는 직·간접적으로 『구역인왕경』을 축으로 고려시대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구결의 시대적인 변천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석독구결 자료는 10세기 초에서 13세기 후반에 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7] 각 자료의 연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고(앞은 남풍현 1999c/뒤는 남권희 2002) 이들 자료는 현재 학술지 혹은 단행본의 부록으로 공개되어 있다(< >안에 표시). 이들은 모두 記入吐를 가진 佛典 자료들로, 儒家의 경전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釋華嚴教分記』 : 10세기 중엽(950, 60년대)
『大方廣佛華嚴經疏』 권35 : 11세기말 내지 12세기 초엽 / 12세기 초기 <『고려시대의 기록문화』(남권희 2002)>
『大方廣佛華嚴經』 권14 : 12세기 중엽 내지 후반 / 12세기 중기 <『구결연구』 1>
『合部金光明經』 권3 : 13세기 초엽 / 13세기 중기 이후(필체가 다른

6)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이 약체자가 아닌 정자로 표기되어 있다.
或 有如 佛性是 闡提人是 有亦 善根人 无如好尸丁
或 有如 佛性是 善根人是 有亦 闡根人 无如好尸丁
7)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서지는 남권희(1997)과 남권희(2002) 참조.

앞뒤는 중기)<(구결학회 복사본>
『舊譯仁王經』 上 : 13세기 중엽 / 13세기 후기 <『구결연구』 2>
『瑜伽師地論』 권20 : 13세기 후반 / 13세기 후기 <『유가사지론 석독 구결의 연구』(남풍현 1999)>

석독구결은 13세기에 이르러 쇠토하고 순독구결로 교체되었다. 그런데 15세기 이후의 자료에서 『구역인왕경』 등의 석독구결 표시 방법과는 다르지만 순독구결에 곁들여 석독의 방법이 표시된 자료 『口訣圓覺經』(上一之二, 下三之一・二)이 발견되었다(안병희 1976b). 이들 자료는 漢數字(一~九)로 석독 순서를 지시하고, 숙어는 종선으로 연결하며(合符) 숫자가 지시하는 구절보다 상위의 어순은 圓點('ㅇ')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이 외에 『牧牛子修心訣』, 『大慧普覺禪師書』, 『大乘起信論疏』 등 3종이 더 발굴되었는데 이들의 연대로 보아 한국에서는 17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석독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藤本幸夫 1993).[8] 한편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19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中庸大學章句講譜』에 고려시대의 석독구결과 유사한 독법의 구결이 달려 있음이 보고된 바도 있다(정경주 1982).[9] 이러한 사실은 15세기 이전의 어느 시기까지 현전하는 석독구결과는 표시 양식이 다른 석독구결 양식들이 존재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8) 이들은 조선 전기의 『牧牛子修心訣』(1467년, 小倉文庫)와 조선 후기의 『大慧普覺禪師書』(17세기 후반, 동경대학 종합도서관), 『大乘起信論疏』(上 1657년, 下 1663년, 慶應義塾大學 부속도서관)이다. 자세한 것은 藤本幸夫(1992, 1993) 참조.

9) 이 자료는 『中庸大學章句講譜』로, 구결의 표기는 그 계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구결 표기의 특징은 순독구결은 모두 약체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석독 표기에는 한글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정경주(1982) 참조.

2.2. 석독구결의 해독과 문자체계

『구역인왕경』이 발견되고 부딪친 제일 큰 문제는 순독구결과는 달리 한자 좌우에 약체자로 달려 있는 口訣字와 口訣吐 그리고 이로 표기된 구결문의 해독이었다. 이 구결은 한자 좌우에 달려 있는 구결을 逆讀點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해독하면 한문을 국어의 어순으로 바꾸어 읽게 됨으로써 기존의 순독구결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석독구결임이 밝혀져 한국에서도 한문을 원문 그대로 읽어 나갔던 '순독'과 달리 한국어의 어순으로 바꾸어 읽는 '석독'의 전통이 있었음이 밝혀졌다(심재기 1975, 남풍현 · 심재기 1976).

남풍현(1975, 1988)에서는 이 구결이 설총이 '方言으로 九經을 읽었다(以方言讀九經<삼국사기 권46>)'는 '方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그 전통이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구결을 모태로 향찰과 이두의 표기법이 발달하고 순독구결은 여기에서 발전된 새로운 양식의 구결로 보았다.

『구역인왕경』 구결의 해독의 기초는 심재기(1975)와 남풍현 · 심재기(1976)에서 이루어졌다. 남풍현 · 심재기(1976)는 略體로 표기된 구결자의 原字의 추정 근거를 조선시대 구결의 약체 형성 원리에서 찾아 『구역인왕경』 구결의 문자체계와 그 독법을 밝히고[10] 한자 좌우에 달린 토와 역독점에 의한 구결의 독법을 밝혔다. 심재기(1975c)에서는 이 중 일부 구결자의 원자를 새롭게 추정하면서 구결을 국어의 어순으로 풀어 읽었다. 그리고 구결문은 이동림(1982) 특히 김두찬(1997)에서 자세한 주해와 함께 해석되었고 차자체계와 기능체계가 면밀히 논의되었다(김두찬 1997). 한편 남성우 · 정재영(1998)에서는 『구역인왕경』 구결의 표기법에 이어 원문 해독문과 함께 한글 전사를 실어 『구역인왕

10) 여기에는 51자의 구결자가 정리되어 있는바, 일부 구결자의 원자 또는 독법은 미상으로 보류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남풍현 · 심재기(1976) 참조.

경』 구결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구역인왕경』이 공개되고 구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구결자의 원자와 독법이 재론되어(이동림 1982[11], 김영만 1986, 김두찬 1987, 이승재 1993a) 'ㅣ, 𠂉, 𠂇'를 비롯한 일부의 원자나 '冬, 尸, 中' 등의 독음이 수정되고 '𠂤, 𠂢' 등이 '令'과 '齊' 등의 약체자임이 새로이 밝혀졌다.[12] 한편 『구역인왕경』을 비롯한 석독구결 자료의 일부 구결자의 독법은 남풍현(1976, 1977a, 1977b, 1997a), 백두현(1993, 1995a), 이승재(1993a), 이장희(1995, 1996b), 장경준(2002), 황선엽(2003) 등에서 이들의 문법적 기능과 더불어 논의되었다. 남풍현(1976, 1977a, 1977b, 1997a)은 부정사 '不矣/안디'와 '不冬/안둘'의 독법과 기능, 처격 표지 '中', '良中', '良叱', '衣', '衣中'의 표음과 그 역사적인 발달, '之叱'의 기능, '𠂉'와 '𠂤'의 원자와 표음 등을 다룬 것이고 백두현(1993, 1995a)은 『화엄경』 권14의 '支, 矣'와 '十'의 독음과 기능을 살핀 것이다. 이승재(1993a)는 『구역인왕경』의 구결자와 『화엄경』 권14에 새로 나온 구결자의 원자와 용법을 그리고 이장희(1995, 1996b)는 구결자 '乙'과 '𠂤'의 독음과 기능을 검토한 것이다. 황선엽(2003)은 '斤'자의 독법을 논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결자의 독음이나 원자의 추정에는 후기중세국어 시기의 구결자와 그 독법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안병희(1977)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업적이다.

1999년 『舊譯仁王經』의 구결은 『구결연구』 제5집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들 논의는 한·일의 한문 독법의 비교(윤행순 1999), 특이자형 '𠀉, 尸'의 검토(김두찬 1999), 한자음(김무림 1999), 음운사적 의

11) 이동림(1982)는 이 구결을 국어의 어순으로 배열하여 읽고 미해결 구결자의 새로운 해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구결 유형의 계열상의 분포 상황을 들고 총51자를 도표화하여 약체구결자의 원자 및 추정음을 제시하였다.

12) 이들을 포함한 그간의 연구 성과는 남풍현(1999a:96-97)의 구결자 일람표에 정리되어 있다.

의(이승재 1999), 경어법(백두현 1999), 시상과 서법(김영욱 1999), 종결어미(장윤희 1999), 구문론적 양상(박진호 1999), 어휘(박성종 1999)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구역인왕경』과 더불어 새로 발견된 석독구결 자료들에 대한 논의들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업적으로는 『화엄경』 권14에 대한 연구(이승재 1993a. 백두현 1993. 1995a, 남풍현 1994, 남권희 1993a, 심재기·이승재 1998, 김두찬 2000)과 『유가사지론』 권20에 대한 일련의 연구(남풍현 1993, 1998, 1999) 그리고 『화엄경소』 권35에 대한 연구(남권희 1994a. 2002, 남경란 2002. 2003, 김동소·남경란 2003)과 『금광명경』 권3에 대한 논의들(남권희 1994b. 2002, 정재영 1998b)을 들 수 있다.

이승재(1993a)는 『화엄경』 권14의 구결자 중 일부의 독법과 기능을 검토한 것인데 이 중 '攴'자를 김완진(1960)에서 설정한 지정문자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백두현(1993)은 『화엄경』 권14의 '攴'와 '矢'의 독법과 문법 기능을 검토하고 '攴'가 보이는 여러 기능으로 보아 지정문자설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심재기·이승재(1998a)는 『화엄경』 구결의 표기법의 특징 및 문자 체계를 살피고 원문 해독문 더불어 이를 한글로 전사한 것이다. 원문 해독문은 남풍현(1994)에서도 국어의 어순으로 풀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김두찬(2000)은 『화엄경』 구결의 차자체계와 기능체계를 밝히고 원문 해독문과 함께 이를 번역하여 전반적 이해에 기여하였다.

『瑜伽師地論』 구결의 문자체계와 독법은 남풍현(1993, 1998a, 1999b)에서 논의되었다. 이 중 남풍현(1998a)은 필자가 발굴·소개한 『유가사지론』 권20의 표기 특징과 문자 체계를 살피고 원문 해독문과 한글 전사를 실은 것이다. 남풍현(1999b)는 『瑜伽師地論』 권20에 대한 연구서로 남풍현(1998a)에서의 논의를 보충하고 구결자별 색인 및 원문 영인을 제시하였다.

『華嚴經疏』는 남권희(1994a)에서 서지적 분석과 구결토의 특징이 논

의되었고 남권희(2002)에 구결문과 함께 원문 영인이 부록으로 공개되어 있다. 이 구결은 남경란(2002a), 김동소·남경란(2003), 남경란(2003) 등에서 논의되었다. 남경란(2002)에서는 구결자 '-ㅁ'과 '-ㄴ' 그리고 김동소·남경란(2003)에서는 구결자 '-ㅅ', '-ㄷ', '-ㅊ'의 독음이 고찰되고 남경란(2003)에서는 『화엄경소』에 나타나는 문자체계와 구결의 특징이 논의되었다. 한편 『金光明經』에 대한 논의는 남권희(1994b, 2002)와 정재영(1998b)에서 이루어졌다. 남권희(1994b, 2002)는 『금광명경』의 서지에 이어 구결의 특징을 밝혔고 정재영(1998b)에서는 이 구결의 표기법의 특징과 구결체계가 논의되고 구결의 해독문과 한글 전사가 이루어졌다.

『舊譯仁王經』을 비롯한 구결 자료들에 대한 논의 결과 이들에 나타난 구결자의 문자체계가 밝혀지고 이들 목록을 종합·연구한 업적들이 이루어졌다(백두현 1997c, 정재영 1997b. 1998b, 박진호 2001, 남권희 2002, 장윤희 2003). 이 중 백두현(1997c)은 고려시대의 석독구결 자료와 여말·선초의 순독구결 자료들에 나타난 구결자들을 본음·표음·차자법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문헌별 분포를 도표화하여 고려 시대 구결의 문자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구결자의 기능과 시대적 변화 등을 자세히 밝혀 구결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정재영(1997b, 1998b)과 남권희(2002)는 석독구결 자료 5종에 나타나는 구결자와 그 독음과 원자 및 문헌별 분포를 비교·정리한 것이고, 박진호(2001)은 석독구결의 특징을 구결자별로 그 독음과 원자 및 문헌별 사용 빈도와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에서 정리된 구결자의 목록과 독음 그리고 추정 원자는 다음과 같다(배열은 '구결자(원자/표음)'의 순).

ㅿ(去/거) ナ(在/겨) ロ(古/고) 人(果/과) 尓(旀,尒,爾/곰) 尓(旀,尒,爾/곰) 叵(這/ᄌᆞ) 只(良/ᄀᆞ,ㄱ) 八(只/ㄱ,기) 乃(乃,那/나) 又(奴/노) 乂(奴/노) 卜(臥/누) 匕(尼/니) 匕(飛/ᄂᆞ) 斤(斤/놀.늘) 丁(隱/ㄴ,은,온,는,ᄂᆞᆫ) 丨(多/

다) ᄀ(彼,徐/뎌,셔) ᄭᅦ(第/뎨) ᄌᆞ(支/디,히) ᄃᆡ(大/대) ᄃᆡᆼ(丁/뎡) ᄀᆞᆯ(刀/도) ᄯᅪᆷ(斗/두) ᄯᅡ(地/디) ᄋᆞᆺ(知/디) ᄋᆞ(入/드,드) ᄉᆞᆸ(入/드,드) ᄃᆞᆼ(冬/둘) ᄉᆞᆷ(矣/뎌) ᄉᆞᆷ(矣/뎌) ᄂᆞ(羅/라) ᄉᆞ(羅/라) ᄆᆞ(羅/라) ᄆᆞᆨ(呂/려,리) ᄊᆞ(以/로) ᄊᆞ(以/로) ᄊᆞᆼ(以/로) ᄉᆞᆼ(於,令,?/ㄹ,리) ᄒᆞᆯ(利/리) ᄒᆞᆯ(利/리) ᄆᆞ(尸/ㄹ, 을,올,를,롤,) ᄂᆞ(乙/ㄹ을,올,를,롤) ᄆᆞ(ᄆᆞ/마) ᄆᆞ(彌.弥/며) ᄆᆞᆨ(毛/모) ᄆᆞᆯ(勿/믈) ᄆᆞᆷ,ᄆᆞᆷᄒᆞ(音/ㅁ) ᄇᆞᆷ(邑/ㅂ) ᄇᆞᆯ(邑/ㅂ?) ᄉᆞ(沙/사,ㅿ) 三(三/삼) ᄉᆞᆷ(立/셔) 一(三?,一?/삼?,일?) ᄀᆞᆯ(示/시) ᄉᆞᆼ(賜/시) ᄇᆡᆨ(白/숩,숣) ᄎᆞᆨ(叱/ㅅ) ᄋᆞ(良/아,애) ᄒᆞ(與/?) ᄋᆞᆨ(亦/여) ᄋᆞ(亦/여) ᄂᆞᆫ(良,女,也.?/아,여,야) ᄒᆞ(乎/오) ᄋᆞᆺ(五/오) ᄒᆞ(于/우) ᄋᆞ(衣/의,ᄋᆡ) ᄇᆡ(是,利/이) ᄋᆞᆨ(亻弋/익) ᄋᆡᆼ(印/인,ᄀᆞᆫ?) ᄉᆞᆼ(成/일) ᄀᆞ(齊/져.졔) ᄆᆞᆷ(止/디,뎌) ᄌᆞ(之/,의?,예,?) 造(造/짇?) ᄒᆞ(下/하) ᄂᆞ(乎/호,오) ᄒᆞ(乎/호,오) ᄀᆞᆷ(兮/히) ᄋᆞ(爲/ᄒᆞ) ᄒᆡ(ᄉᆞ/令) ᄐᆞᆼ(中/긔,히) ᄒᆞ(中/긔,히) ᄌᆞ(子?,孫?/ᄌᆞ,?) 甲(甲/?)

이들 구결자 중 일부의 원자 또는 독음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구결자의 문자체계는 13세기에 들어 석독구결에서 순독구결로 교체되면서 13세기말에 대폭적으로 교체되고 일부 구결자는 소멸되거나 기능이 변화되었고,[13] 순독구결에만 나타나는 구결자가 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승재 1997). 이러한 문자체계의 통시적 변화는 백두현(1997)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2.3. 음운론적 연구와 형태·통사론적 연구

고려 시대의 구결 자료는 형태·통사적으로 중세국어와 다른 여러 문법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를 대상으로 이 시기의 언어의 문법과 문

13) 예를 들면 口訣자 'ᄀᆞ[겨]'와 'ᄆᆞ[ᆵ]'의 소멸, 'ᄉᆞ[히]'의 기능의 변화, 종결어미의 'ᄆᆞᆨ[라]'의 교체(ᄆᆞᆨ>ᄉᆞ>ᄂᆞ), 시상 형태 'ᄂᆞ[누]'의 'ᄂᆞᆫ[누]'로의 교체 등을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이승재(1997), 백두현(1997) 참조.

법사를 검토한 업적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백두현(1997)은 국어 형태사적으로 의의있는 형태 몇 가지(대명사, 형식명사, 부사, 부정사, 주격조사와 첨사, 접사와 어미)의 예를 들어 형태론적 가치와 의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로는 부정사와 부정문의 유형(남풍현 1976. 조은주 2001, 2003) 처격 형태와 기능(남풍현 1977a) '之叱'의 형태와 의미기능(남풍현 1977b) 등의 논의와 석독구결의 표기법에 나타나는 말음첨기(이건식 1995)와 생략표기(이건식 1997), 석독구결 조사의 형태와 기능(이건식 1996b)에 대한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구결에 쓰인 격조사와 향가 및 이두에 쓰인 격조사가 비교·검토되기도 하였다(이승재 2000).

어미 중 동명사 어미에 대한 연구로는 동명사어미 '-尸/'의 분포와 기능(심재기 1979)(심재기 1979. 남풍현 1996a, 1996b), 동명사어미 '-ㄱ/ㄴ'의 기능과 형태론적 특성(남풍현 1996c)이 검토되고 이승재(1995a)에서는 동명사 어미의 역사적 퇴화 과정이 논의되었다.

선어말어미와 관련된 연구로는 존경법의 '-ㅅ-'(-시-)와 겸양법의 '-白-'(-숩-)의 분포와 기능(백두현 1995b) 선어말어미 '-ㅁ-'(-오-)의 분포와 통사적 성격(백두현 1996, 1997b) 및 변화(정재영 1997a) 선어말어미 '-ナ-(겨)-'의 의미기능(이승재 1996, 1998. 정재영 2002) 선어말어미 '-ㅌ-(-ᄂᆞ-)'(정재영 1999)와 '-ㅁ-'(고)의 분포와 기능(이용 1999)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이병기 1998) 시상과 서법(김영욱 1999) 등이 논의되었다. 이 중 이승재(1996, 1998b)에서는 선어말어미 '-ナ-(겨)-'를 주체경어법 선어말어미로 해석하였다. 백두현(1997a)에서는 이들 선어말어미들이 보이는 계열관계와 통합관계가 검토되었다.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로는 종결어미 '-ㅛ'의 분포와 통사기능(정재영 1996b) 의문법어미의 형태와 발달(정재영 1995b) 명령형 어미(장윤희 1997)와 감탄법 종결어미(장윤희 1998)의 분류와 통사·의미적 특성, 『구역인왕경』의 종결어미의 종류와 기능(장윤희 1999) 등이 논의되었다.

통사론적 연구로는 미정관형구성의 종류와 기능(이장희 1996a) 관형사절 '-ㅌㄷ/ᄉㄷ'과 '-ㄱ/-ㄹ'이 실현된 구문의 통사적 차이(황국정 2000), 석독구결의 '-ㅋㅓㅅ-' 구문(황국정2001), 『구역인왕경』의 구문론적 성격(박진호 1999)과 석독구결에 나타난 동명사어미의 접속어미적 기능, 부사의 격지배 현상 등의 통사론적 특징(박진호 1997), 석독구결에 나타난 부정사의 기능(이용 2003)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음운론적 연구로는 '-ㄱ-' 과 '-ㅣ(다)'의 형태음소론적 교체(이승재 1994)와 '-ㄱ-'의 약화·탈락(이승재 2002a) 그리고 선어말어미 '-ㅎ/ㅿ[시]-'의 형태음소론적 특성(이승재 2000c) 등이 논의되었고 김주원(1997)에서는 『緇門經訓(石崙菴本』의 구결에 반영된 구개음화를 통해 16세기 경상도 방언을 논의되었다.

어휘에 대한 연구로는 『華嚴經』 구결의 상태동사 어간의 독법(이승재 1995b) '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정재영 1995a) 고려시대의 {-이} 파생부사와 변천과정(정재영 1998a) 『구역인왕경』의 어휘(박성종 1999) 등에 대한 논의와 석독 구결 '皆ㄷ', '悉ㅋ'와 고려 향찰 '頓部叱', '盡良'에 대한 비교·고찰(김영만 1997) 그리고 『유가사지론』의 '由ㅋ'와 '如ᄎ-'의 독법을 고찰한 김영만(2000) 등이 있다. 김영만(2000)에서는 '由ㅋ-'와 '如ᄎ-'를 종래의 독법 '쓰-'와 '다'와 달리 '由ㅋ-'는 '말미삼-', '如ᄎ-'는 'ᄀᆞᆮ-'으로 읽어야 된다고 보았다.

1998년 『口訣硏究』 제3집에서는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표기법'이란 주제 아래 『화엄경』 권14(이승재 1998) 『合部金光明經』 권3(정재영 1998) 『舊譯仁王經』 권상(남성우·정재영 1998) 『瑜伽師地論』 권20(남풍현 1998) 등[14]의 표기법이 종합·정리되었다. 이들은 각 자료별로 구결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표기 및 문법적 특징을 살폈으며 구결을 한글

14) 『화엄경소』는 당시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제외되어 있다. 『화엄경소』의 구결문, 문자체계와 표기 등은 남권희(2002:673-684)와 남권희(2002:611-615)을 참고하고, 원문은 '부록'을 이용할 수 있다.

로 전사하여 원문과 함께 제시하여 연구에 좋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석독구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 구결의 기원에 대한 논의도 새로이 이루어졌다. 남풍현(1988)에서는 대각국사 의천의 新編諸宗敎藏總錄(義天錄)에 의상의 『要義問答』 2권과 『一乘問答』 2권에 '方言(국어)이 섞이어 있다'고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석독구결의 문자화가 설총보다 한 세대 앞서는 7세기 후반 의상의 시대에 이미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사실은 일본 훈독법의 기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시대의 구결자료는 이를 바탕으로 신라시대의 구결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입각하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두나 구결 자료를 통해 신라시대의 구결의 모습을 재구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남풍현 2002).

석독구결은 국어사 특히 국어문법사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다. 고영근(1998)은 이러한 국어사적 가치를 문자와 표기법, 음운론과 형태론 및 통사와 어휘 그리고 비교문자론적 관점에서 개괄하였고, 장윤희(2003)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석독구결 자료와 구결자, 석독구결법과 석독구결문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3. 순독구결의 연구와 자료의 발굴

석독구결의 연구와 더불어 순독구결에 대한 연구도 새롭게 이루어져 이들의 표기법과 문법적 특징이 논의되었다. 남풍현(1990)에서는 여말·선초의 구결 그리고 이전경(2001)에서는 15세기 구결의 표기법이 논의되었고 이승재(1993b)에서는 여말·선초의 자료[15]들에 나타나는 구

15) 여기서 논의된 자료는 『능엄경』, 『범망경』, 『불설사십이장경』, 『남명집』, 『직지심체요절』, 『법화경』 등이다.

결을 정리하고 이들의 국어사적 가치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특이한 어미 'ᄂᆞᆫᄉᆞᆯᄐᆡ/ᄒᆞ여샷다'와 'ᄆᆞᄋᆞᄉᆞ/코볼라'의 기능(남풍현 1991), 'ᄂᆞᄉᆞᄒᆞ/ᄒᆞ며히'의 기능(김두찬 1996) 등과 문법형태 '-거/어-'의 교체(김영욱 1996)와 속격조사 'ㅣ/ㅅ'의 교체(김영욱 1997), 시상과 서법(김영욱 2000) 등 문법적 특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한편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어 이들의 문자체계와 표기법 및 문법 특징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업적으로는 『高麗版 南明集』(김두찬 1987a), 『直指心體要節』(김두찬 1987b), 筆寫本 『蒙山法語略錄』(김두찬 1989a), 『佛說四十二章經』(김두찬 1989b, 남경란 2001b), 『楞嚴經』(남풍현 1990),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최은규 1993, 남권희 1993b), 『祇林寺本楞嚴經』(한상화 1994), 『梵網經』(이승재 1990, 정재영 1996a), 奎章閣所藏 『高麗本楞嚴經』(박진호 1996), 『圓覺略疏注經』(황선엽 1996), 고려본 및 남권희본 『楞嚴經』(남경란 1997, 1998, 1999a, 1999b, 2000a, 2000b, 2001a, 2001b) 『永嘉證道歌』(박부자 2000) 등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13세기에서 15세기 한글 창제 이전까지의 언어를 보여주는 자료들에 대한 논의로 이들에 의하여 이 시기의 언어상을 살피고 구결의 시대적인 변천상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순독구결 문헌 중 일부 『능엄경』 자료는 1995년(제1집)과 1996년(제2집, 제3집) 구결자료집으로 간행되어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제1집은 『安東本 楞嚴經』(남풍현 해제)와 『大邱本 楞嚴經』(이승재 해제), 제2집은 『祇林寺本 楞嚴經』(정재영 해제), 제3집은 『宋成文本 楞嚴經』으로 편집되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학자료총서로 간행되었다.

구결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서가 출간되었다(남풍현 1999, 남풍현 2000). 남풍현(1999)은 저자가 발견·소개한 『유가사지론』 권20에 대한 연구서이고 남풍현(2000)은 그 동안의 구결 관련 주요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엮은 것으로[16] 구결 연구에 귀중

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구결 연구에서도 구결의 전산 처리는 필수적이다. 이건식(1996a)은 이를 위한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 워드프로세서 '훈글'에 구결자의 코드를 만들어 넣음으로써 구결 연구에 크게 공헌하였다.

4. 角筆口訣의 발견과 點吐口訣[17]의 연구

석독구결 자료의 발견은 국어사 특히 국어문법사 기술을 12세기까지 끌어 올렸으나 그 이전 시기는 여전히 공백기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를 메워줄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2000년 7월초 일본의 小林芳規교수에 의해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초조대장경『유가사지론』권8에서 각필로 기록된 점토가 발견되고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필점토가 발견됨으로써 한국에서도 각필이 사용되었었고 이러한 구결표기 방식이 11세기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점토구결은 일본의 오코도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일본의 훈점은 이제까지 일본의 한문훈독에서만 사용되어 왔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고안하여 발달시킨 한문훈독의 표기법이라고 알려져 왔었다(윤행순 2001).

---

16)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구결연구의 기초'에서는 구결의 기본 개념과 기원 및 성격, 2부에서는 석독구결 자료 및 부정법, 처격, 동명사형 어미 등의 문법형태의 역사적 발달, 3부에는 순독구결(음독구결) 자료와 관련된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17) 각필구결의 명칭은 현재 '點吐口訣'(남풍현 2000a) 또는 '符號口訣'(이승재 2000a)로 불리고 있는데 '符點口訣'이란 새로운 용어(이승재 2003)가 제시된 바 있다.

4.1. 각필구결 자료의 종류와 연대

2000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많은 자료들이 조사되었다.[18] 그러나 이 중 고려 시대의 각필구결을 보여주는 자료는 4종 12권으로 그 종류와 연대 및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남풍현 2002).[19]

1. 『晉本華嚴經』 권20 : 9세기~10세기 <성암고서박물관>
2. 『瑜伽師地論』 권3 : 11세기 전반 <호림박물관장>
   〃 권5, 권8 : 11세기 전반 <성암고서박물관>
3. 『周本華嚴經』 권6, 권22, 권36, 권57 : 11세기 후반~12세기초 <성암고서박물관>
   권31, 34 : 11세기 후반~12세기초 <호림박물관>
4. 『妙法蓮華經』 권1 : 11세기~12세기 <연세대도서관>
   권7 : 13세기 <수덕사>

이와 같이 10세기 내지 11세기의 각필구결이 발견됨으로 미루어 이 구결은 이 때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보다 이른 시기부터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자료보다 이른 시기의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각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 이승재(2000a)에서는 이 시기를 8세기경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는 위의 자료들보다 이른 시기의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전해져 오던 『화엄문의요결』에 朱點으로 쓰인 신라시대의 점토구결이 발굴되었고(小林芳規 2001, 2002) 김영욱(2003)에

18) 고려시대의 점토구결을 포함하여 조사된 각필문헌 목록은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小林芳規(2002)에 2001년 4월 현재 발견된 52종의 각필문헌 목록이 소장처별로 정리되어 있다.

19) 『법화경』 권7은 2003년 8월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남풍현(2003)에 의해 발표된 것임.

서 여기에 쓰인 7종의 점토와 2종의 부호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신라시대의 점토구결의 존재와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小林芳規(2003)에서 7세기말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경전『判比量論』에 일부 각필점토 구결이 쓰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2. 점토구결의 해독과 자료의 보급

角筆口訣이 발견된 이후 지난 3년간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각필구결의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자료의 보급이 기본적인데 그 동안 이들의 移點本이 공개되고 角筆點吐口訣 자료들이 보급되어[20] 연구 기반이 마련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이들 자료의 점토와 부호의 종류와 기능, 점토의 위치와 點圖의 재구, 점토 표기의 특징 등이 밝혀지고 점토구결도 字吐釋讀口訣과 같이 한문을 한국어로 새겨 읽은 석독구결임이 밝혀졌다.

각필구결 자료의 서지는 남풍현(2000a), 남풍현·이승재·윤행순(2001)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남풍현(2000a)은 한국에서 각필구결이 발견된 경위와 그 의의를 밝히고『유가사지론』(권3, 권5, 권8)과『주본 화엄경』(권6, 권22, 권31, 권36, 권57)의 서지를 밝혔는데 남풍현·이승재·윤행순(2001)에서는 이후 발견된『진본 화엄경』과 이미 발굴되어 있었던 묵서점토구결자료『기림사본법화경』에 대한 검토가 보충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업적들은『周本華嚴經』권22,『晉本華嚴經』

---

20) 그 동안 주로 구결학회를 통해 보급된 각필구결 자료 移點本 및 影印本은 다음과 같다.
이점본 : 유가사지론 권5, 권8(이승재) 권3(윤행순) 권3(김영욱)
전산입력본(CD본자료) : 유가사지론 권8(CD본 1장) 권5, 권8(CD본 4장)
진본화엄경 권20, 주본화엄경 권36(CD본 3장)
주본화엄경 권6, 권22, 권57(CD본 4장)
이 외에 일본에 있는 화엄문의요결(CD본 1장)도 보급되어 있다.

권20, 『瑜伽師地論』 권3, 권5, 권8, 『法華經』 권1 및 권7 등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點吐와 符號는 남풍현(2000a, 2002), 이승재(2000a, 2001a, 2001b), 정재영(2001), 김영욱(2001a, 2001b, 2001c), 윤행순(2001, 2003), 서민욱(2001), 장경준(2002a, 2002b, 2002c, 2003), 이전경(2002) 등에서 검토되었다. 그 결과 각 자료에 나타난 점토와 부호가 밝혀지고 그들의 기능도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점과 선 및 이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부호의 종류 그리고 구절의 끝자리에 토를 몰아붙이는 점 등은 일치하나 『주본 화엄경』과 『진본 화엄경』의 點圖가 유사하고(남풍현 2000a, 이승재 2000a, 정재영 2001), 『법화경』의 점도는 『유가사지론』의 점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이전경 2002) 등 종파에 따라 점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각 자료에 나타나 점토와 부호는 이승재(2001c, 2002b)에서 點吐와 符標로 나누어 종합·정리되었는데 이를 이승재(2001c)에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1) 符標

가. 漢字의 테두리 □ □

나. 境界線; 單邊 — {上邊, 下邊} ⌒ {上邊} ⌣ {下邊}) {右邊}

二邊 ⌐{左上} ¬ {右上} ㄴ {左下} ㄱ {右下}

三邊 ㄴ {上邊 無} ㄇ {下邊 無} ㄷ{右邊 無}

다. 補助線) >

라. 句讀線 — ⌣ ¬

마. 合符 | {垂直線}<二字用, 三字用, 四字用, 六字用>

/ {對角 長線}<二字用, 三字用>

바. 逆讀線 ㄱ{下向} ㄴ{下向} ㄴ{上向} / {上向} \ {上向}

사. 校正符號 ／{對角 上向} \ {對角 下向} | {垂直 下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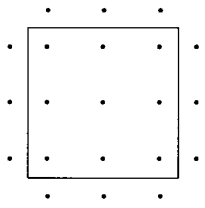
아. 包形線 O {圓, 타원}

2) 點吐

가. 單點	・
나. 雙點	‥ {水平} : {垂直} ⸰ {斜向} ⁖ {逆斜向}
다. 三點	∴ ∵ ⁖ {三角形}
	… ⋮ ⸰ {直線形}
라. 四點	::
마. 單線	- | / \
바. 눈썹형	⊥ ⊦ ⊤ ⊣ ⍀ ⍀ / ⸝ ⸜
사. 느낌표형	⸗ ⸗ ! ⸌ ⸍ ⸌ ⸜ ⸝
아. 망치형	⸗ ⸗ ⸗ ⸗ ⊦ ⸜ ⸝ ⸜ ⸝ ⸌ ⸍ ⸍ ⸌
자. '요야'형	⸬ ⸫ ⁞ ⸜ ⸌
차. 平行線形	= ‖ // \\
카. 가위형	× 十
타. '∧'형	∧ ∨ < > ⸜ ⸝ ⸢ ⸣ ⸜ ⸝

각필구결에 나타나는 이들 점토와 부호는 문자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승재(2001c)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點吐의 字形과 제작원리를 훈민정음과 비교하여 자형에 일치되는 예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일치의 양상이 체계적임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점토의 자형과 제작원리가 훈민정음의 자모 제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훈민정음의 부호자 기원설'을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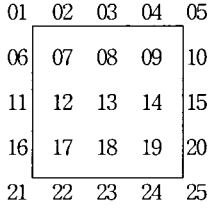
각필구결이 발견된 후 이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논의는 남풍현(2000a), 남풍현・이승재・윤행순(2001)에서 이루어졌다. 후자는 남풍현(2000a)의 논의에 『晉本華嚴經』과 『祇林寺本 法華經』에 대한 논의를 보충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각필구결이 발견된 경위와 그 의의를 밝히고 『유가사지론』(권3, 권5, 권8)과 『周本華嚴經』(권6, 권22, 권31, 권36, 권57)의 서지와 이들에 나타난 점토와 부호의 종류 및 기능을 살피고 點圖와 그 성격을 고찰하였다. 이 글은 점토의 위치를 21개로 설정하고(<그림 1>)



<그림 1>

『주본 화엄경』과 『유가사지론』의 점토의 비교 결과 그 종류는 거의 일치하나 음이나 형태는 서로 달라 같은 점토라도 종파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각필구결이 점토를 구절말에 모아 놓은 특징으로 볼 때 이러한 표기를 보여주는 여말·선초의 순독구결은 墨書釋讀口訣에서 직접 발달한 것이 아니라 點吐釋讀口訣을 거쳐서 발달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승재(2001a)는 『周本華嚴經』 권22의 점토구결을 논의하면서 부호를 點吐와 符標로 나누어 點吐는 문자화가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符標는 문자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부호의 위치를 최대 25개로 잡고 이를 '01'에서 '25'까지 번호로 구분하여(<그림 2> 참조) 위치의 指稱과 記述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림 2>

『晉本華嚴經』 권20의 서지적 특징과 점토구결의 특징은 정재영(2001)과 남풍현(2002)에서 논의되었다. 單點의 위치를 21개로 추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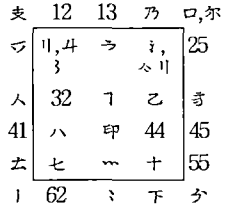
고 이에 따른 點圖와 그 밖의 부호의 유형을 보이고, 다른 각필구결 자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3점 점토가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에 쓰인 異體字들 중 특징적인 것을 재조대장경의 이체자와 비교·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의 欄上의 한 곳에 墨書로 기입된 교정 부분('有本云 中生ㅋ 身ㄴ 中ㅋ十')이 아래의 점토구결과 일치하는 석독구결 표기임이 지적되었다.

『유가사지론』의 각필구결에 대한 논의는 남풍현(2000a), 이승재(2000a, 2001b), 김영욱(2001a, 2001b, 2001c), 윤행순(2001, 2003), 서민욱(2001), 장경준(2002a, 2002b, 2002c, 2003), 이승재·안효경(2002)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승재(2000a)는 새로 발견된 각필구결의 명칭으로 '符號口訣'을 제안하고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의 부호와 그 해독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승재·안효경(2002)도 이들 자료의 점토를 검토하고 한자의 자형과 판독상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리고 점토의 위치를 다음(<그림 3>)과 같이 30개의 좌표로 표시하고 이에 따라 點圖(<그림 4>를 추정하였다.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61	62	63	64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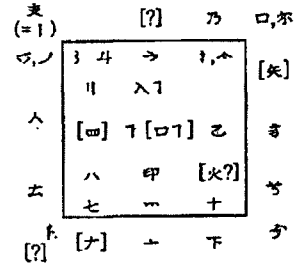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4>

김영욱(2001a, 2001b)은 『瑜伽師地論』 권3, 5, 8의 점토의 해독을 모색한 것이다. 여기에는 18개의 點吐와 雙點吐 28개, 線吐 30개 등 총 76개의 부호가 추정되었는데 이 중 쌍점토의 해독은 김영욱(2001c)에

서 권8에 현토된 水平雙點吐를 중심으로 점토에서 쌍점토가 형성되는 과정을 '點吐의 移動'이란 가설로 모색하였다. 장경준(2002a, 2000b)에서도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에 기입된 角筆口訣字와 그에 대응하는 口訣點의 기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記入口訣字 14종을 확인하고 이들의 字吐釋讀口訣에서의 기능과 대응 구결점의 기능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단점의 자릿수는 최대 3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단점의 點圖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그림 5>).



<그림 5>

한편 이승재(2001b)은 '者'자에 기입된 여러 형식의 부호와 그 해독 방법을 모색하고 3점 점토는 다시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서민욱(2001)도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에 나타난 '者'자에 기입된 구결 목록을 제시하고 이 중 일부의 독법을 논증하였다.

『묘법연화경』 권1의 점토구결은 이전경(2002)에서 간략한 서지와 함께 그 유형과 특징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이 구결의 점토는 『유가사지론』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많은 점토가 나타나고 특이한 부호가 사용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한편 남풍현(2003)에서는 수덕사소장 『법화경』 권7의 낙장(앞부분 2장)의 부호와 점도 등이 검토되었다.

각필구결의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점토와 부호의 현토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판독과 이에 따른 점도의 재구라 할 수 있다. 장경준

(2003c)는 이에 대한 논의로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의 원칙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경준(2002a)은 점토의 기준 위치가 대상 한자의 자형의 인식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제기하였고 장경준(2000c)에서 『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이의 논증을 시도하였다.

각필구결점에 대한 정밀한 논의는 박진호(2003)와 장경준(2003a)에서 이루어졌다. 박진호(2003a)은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의 11위치의 單點 중 종래 'ㅣ'로 해독된 경우 이는 'ㅜ'으로 해독되어야 함을 밝힌 것이고 장경준(2003a)은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구결점의 존재를 예증한 것이다. 한편 장경준(2003b)에서는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 사용된 부호 가운데 이른바 '指示線'의 기능과 사용 환경이 고찰되었고 박진호(2003b)에서는 『周本華嚴經』 권36의 점토구결이 『華嚴經』 권14 및 『華嚴經疏』 권35에 기입된 자토구결과의 대응 양상을 바탕으로 해독되었다.

점토구결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이를 일본의 훈점과 비교하여 그 성격을 논의한 연구업적도 이루어졌다(윤행순 2000, 2001, 2003). 전체적으로 유가사지론의 점토구결의 독법은 일본의 9세기의 한문독법과 유사한 면을 나타내는데, 한국의 각필구결과 일본의 훈점이 자료의 성격과 대상, 점토의 체계와 위치 등에서 대조적임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의 점토가 일본의 훈점과 달리 세분되고 복잡한 체계를 이루게 된 것은 일본에서는 가타가나(片假名)와 오코토點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오직 點吐로만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 원인으로 해석하였다.

그 동안 이루어진 점토석독구결의 연구는 각 자료별 점토와 부호들을 해독하고 이들의 기능을 살핀 뒤 점도를 제시하는 등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사각형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변별적 구결점을 찍은 것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점도상

에 설정되는 점토의 위치수와 구결점의 위치와 종류 등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에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화엄경』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유가사지론』 점도의 경우 점토의 위치수가 21개(남풍현 2000a, 윤행순 2000), 25개(이승재 2001b) 혹은 30개(이승재·안효경 2002)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한자의 테두리 선('□') 안팎에 오는 것으로 이해하거나(남풍현 2000a, 윤행순 2000, 이승재 2001b, 장경준 2002) 테두리 선상에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영욱 2001a). 형태에 따라 단위부호 혹은 복합형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의 초기에서 겪는 불가피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점토부호구결이 보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결 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연구 해명될 과제이다.

4.3. 한국의 구결과 일본의 훈점

한국의 구결과 일본의 훈점과의 관계는 그 유사성으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築島裕(1969)은 일본 훈점의 기원을 초기 훈점본들로 볼 때 南都(奈良)의 古宗의 하나인 화엄종의 학승들 사이에서 훈점의 수법이 창안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藤本幸夫(1988)에서는 일본의 한문훈독에 한국의 영향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고 藤本幸夫(1992)에서는 15, 16세기 한국의 불경들의 훈독법에 나타나는 부호(一, 二, 三, 四, 五)와 『구역인왕경』의 역독부호(성점) 등을 일본 평안시대의 훈독부호와 비교하고 일본의 한문훈독이 한국의 훈독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본 바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각필구결이 발견되고 이것이 일본의 훈점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의 관계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小林芳規(2001)는 한국과 일본의 각필문헌을 비교하여 일본의 각필

문헌 중 가장 오랜 것은 8세기임에 비하여 한국의 각필자료는 7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한국의 각필이 더 오래된 것으로 보았고 8세기말에서 11세기초 사이에 적어도 3단계에 걸쳐서 일본의 고훈점이 한국의 점토부호의 영향를 받았던 것으로 보았다.[21] 그리고 800년경에 서사된 것으로 알려진 제1단계 자료 『華嚴文義要訣』(1권)에 나타나는 오코토점이나 부호들은 일본의 고훈점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발견된 星点과 일치하여 여기에 기입된 훈점이 한국의 신라의 점토에 기초해서 이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石塚晴通(2001)은 일본어의 초기훈점 자료에서 오코토점은 원시적 형태를 보였으나 이것이 20-30년 사이에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발생기의 오코토점이 한국에서 발견된 점토구결과 같이 정돈된 형태의 모델을 이입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5. 마무리

1975년 『구역인왕경』 구결이 알려진 이후 많은 새로운 구결 자료들이 발굴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당시의 국어 사실들을 통해 그 동안 국어사의 공백기로 남아 있었던 전기중세국어 시기의 국어 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는 아직도 밝혀야 할 과제가 쌓여 있고 2000年7월 새로 각필구결 자료가 발견됨으로써 구결 연구는 더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당장 당면한 과제는 새로 발견된 각필점토구결의 연구와 해명이다. 현재 이들 자료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자료의

21)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 중 1단계와 관련된 것만이 언급되고, 2, 3단계에 대한 논의는 유보되었으므로 전반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언어체계와 문법을 해명하는 일이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깊은 연구와 더 많은 각필자료의 발굴이 요구될 것이다. 이것은 자토석독구결 자료와 순독구결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를 통해 15세기 국어로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해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도 밝힐 수 없는 어휘형태나 문법형태가 해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5세기 이후의 구결 자료는 유·불가를 막론하고 많은 양이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채 쌓여 있다. 이들은 유가와 불가별로 분류·정리되어야 할 것이다.[22] 이러한 작업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조말에 이르기까지 구결이 시대적으로 변천해 온 계통을 밝히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시간과 노역이 요구되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한국의 구결과 일본의 훈점과의 비교도 중요한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그 동안 藤本幸夫(1988, 1992) 등에서 언급된 바 있는바 각필구결이 발견됨으로 더욱 해명해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다분히 유사성도 보이고 있다. 둘 다 한문을 자국어로 새겨 읽는 방법을 보인 것으로 한국의 각필구결에 나타난 점과 선의 운용방법은 일본의 훈점 표기에 쓰였던 점과 선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구결연구는 문자와 표기, 형태와 통사, 어휘 등과 관련된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결자의 원자와 독법, 형태와 의미를 밝히기 어려운 문법형태와 어휘형태, 구결어형의 확립과 구결문법의 정리 나아가 고려시대 이전의 구결의 재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구결자료의 발굴로 전기중세국어에 대한 기술이 가능해지고 이로써 중세국어와의 연속성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동

22) 이러한 연구로 남권희(1999)에서 조선 중기부터 구한말까지의 구결자료(유교류 22권, 불교류 10권)의 문자체계가 논의된 바 있다.

안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언어사실과 새로 발견된 각필구결의 문법을 밝혀 국어사 서술에 통합하는 일은 구결 연구 앞에 가로놓인 큰 과제이다.

아울러 그 동안 발굴된 구결자료를 종합하고 보급하는 일과 구결에 대한 안내서 및 연구서 등의 출간 등도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고영근(1998), "석독구결의 국어사적 가치", 『구결연구』 3, 구결학회, pp.1-28.

구결학회편(1997),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 태학사.

김동소 · 남경란(2003), "『大方廣佛華嚴經疏(권35)』 입겾의 독음 연구-'-ㅅ', '-ㅊ', '-ㅈ'를 중심으로", 『어문학』 79, pp.115-131.

김두찬(1987a), "고려판 『남명집』의 구결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_____(1987b), "『직지심체요절』의 구결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pp.125-149.

_____(1989a), "필사본 『몽산법어약록』의 구결에 대하여", 『국문학논집』 13, 단국대 국문과, pp.393-427.

_____(1989b), "『불설사십이장경』의 구결에 대하여", 국어학 18, 국어학회, pp.64-88.

_____(1995), "『구역인왕경』 구결 기능체계",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pp.161-214.

_____(1996), "구결어미 'ㄴ가ㄱ'에 대하여", 『구결연구』 1, 구결학회, pp.11-44.

_____(1997), "舊譯仁王經 口訣 解讀 試攷", 『구결연구』 2, 구결학회, pp.161-242.

_____(1999), "다시 토 '𠫓'와 'ㄕ'에 대하여", 『구결연구』 5, 구결학회, pp.59-74.

_____(2000), "『華嚴經十四』 구결 기능체계", 『구결연구』 6, 구결학회, pp.343-449.

김무림(1998), "석독 구결 음차자의 독법에 대하여", 제18회 공동연구호, 구결학회, pp.33-49.

_____(1999), "고려 시대 구결 한자음의 연구", 『구결연구』 5, 구결학회, pp.75-108.

김문웅(1995), "구결법의 변천",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pp.429-454.

김영만(1986), 「『구역인왕경』의 석독표기 소고(1)」,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pp.58-69.
_____(1997), "석독 구결 '皆ㄴ', '悉ᄉᆞ'와 고려 향찰 '頓部叱', '盡良'의 비교 고찰", 『구결연구』 2, 구결학회, pp.1-26.
_____(2000), 『유가사지론』의 "由ᄉᆞ"와 "如ᄒᆞᆫ-"의 독법에 대하여, 『구결연구』 6, 구결학회, pp.41-60.
_____(2002), "구결어 '如(ㅣ·ᄒᆞᆫ·ᄒᆞᆫ·ㅅ·印)의 해독법 연구", 『한민족어문학』 40, pp.117-139.
_____(2003), "『유가사지론』 권제5·8 각필구결에 나타난 如(ᄒᆞᆫ, ㅅ)",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101-108.
김영욱(1996), "14세기 문법형태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기림사본 능엄경을 중심으로-", 『한글』 233, 한글학회, pp.69-104.
_____(1997), "14세기 문법형태 'ㅋ/ㄴ[의/ㅅ]'의 교체에 대하여", 『구결연구』 2, 구결학회, pp.243-264.
_____(1999), "구역인왕경 구결의 시상과 서법 선어말어미", 『구결연구』 5, 구결학회, pp.147-164.
_____(2000), "14세기 국어의 시상과 서법", 『구결연구』 6, 구결학회, pp.61-86.
_____(2001a),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3의 구결에 대하여", 『제24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pp.137-143.
_____(2001b), 『유가사지론』 점토의 해독 방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pp.57-77.
_____(2001c), "『유가사지론』 쌍점토의 해독 방법 연구",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pp.215-229.
_____(2001e), "초조대장경본 『유가사지론』 점토의 해독 방법 연구", 제25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pp.37-48.
_____(2002), "11세기 문법형태를 찾아서",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출판부, pp.157-172.
_____(2003),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pp.47-78.
김주원(1997), "『緇門經訓(석륜암본)의 기입토에 나타난 16세기 경상도 방언", 『구결연구』 2, 구결학회, pp.265-290.

남경란(1997), "고려본『능엄경』입겾과 'ㅣ'형 종결법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1999a), "『능엄경』권8의 입겾 연구-고려본과 조선 초기본을 대상으로-", 『한국말글학』16, 한국말글학회, pp.129-148.

_____(1999b), "남권희본『능엄경』입겾 자형에 대하여", 『어문학』66, 한국어문학회, pp.62-100.

_____(2000a), "'남권희(나)본'『능엄경』의 입겾 연구", 『구결연구』6, 구결학회, pp.87-134.

_____(2000b), "『능엄경』새 자료에 대하여-남권희(다)본과 파전(坡田)본", 『어문학』71, 한국어문학회, pp.31-68.

_____(2000c), "남권희(라)본『능엄경』입겾에 대하여,『한국말글학』17, 한국말글학회, pp.111-133.

_____(2001a), "능엄경의 음독 입겾 연구", 대구카톨릭대 박사학위 논문.

_____(2001b), "『佛說四十二章經』입겾의 이본에 대하여", 『어문학』75, 한국어문학회, pp.143-169.

_____(2001c), "음독 입겾의 몇 가지 자형", 『민족문화논총』2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139-174.

_____(2002a), "『大方廣佛華嚴經疏(권35)』석독구결에 나타난 독음 고찰-'-ㄲ' '-ㄷ'을 중심으로-,『민족문화논총』2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259-283.

_____(2002b), "『법화경』이본의 입겾(구결) 연구", 『언어과학연구』21, 언어과학회, pp.89-110.

_____(2002c), "麗末鮮初에 간행된 새로운 입겾 자료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 연구』3, 국어사자료학회, pp.31-54.

_____(2003), "『대방광불화엄경소』(권35) 입겾(구결) 연구", 『배달말』32, 배달말학회, pp.1-24.

남권희(1993a), "고려본『대방광불화엄경』권제14와 그 구결 자료", 1997년 여름 구결연구회 구두발표.

_____(1993b), "고려본『자비도량참법』권제1~5와 그 구결 소개", 『서지학보』11, 한국서지학회.

_____(1994a), "고려본『대방광불화엄경소』권35의 서지학적 고찰", 1994년

여름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구두 발표.
_____(1994b), "고려 석독구결 자료 『금광명경』 권3의 소개", 1994年 11월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_____(1995), "담양 용천사 구결본 3종의 서지적 고찰", 1995년 여름 구결연구회 공동연구회 구두발표.
_____(1996), "고려 구결자료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4의 서지적 분석", 『구결연구』 1, 구결학회, pp.377-403.
_____(1997a),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pp.147-194.
_____(1997b), "고려 구결자료 3종 소개", 제16회 구결학회 겨울공동연구회 발표 요지문.
_____(1999), "조선 중기부터 구한말까지의 구결자료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서지학 연구』 18, 서지학회, pp.445-508.
_____(2002), 『고려시대의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남성우·정재영(1998),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pp.195-252.
남풍현(1975), "차자표기법의 발달", 『국문학논집』 7·8합집, 단국대학교 국문과.
_____(1976), "국어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pp.55-82.
_____(1977a), "국어 처격조사의 발달", 『이숭녕선생 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pp.69-94.
_____(1977b), "향가와 『구역인왕경』 구결의 '之叱'에 대하여", 『언어』 2-1, pp.56-66.
_____(1985a),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연대", 『동양학』 1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pp.19-40.
_____(1985b), "『구역인왕경』의 구결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pp.49-57.
_____(1988), "석독구결의 기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pp.233-242.
_____(1990a), "이두·구결",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pp.594-604.
_____(1990b), "고려말·조선초기의 구결 연구", 『진단학보』 69, pp.75-101.
_____(1991), "고려시대 구결에 나타난 一·二 문제", 어문교육 70·71합병

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_____(1993), "고려본 『유가사지론』의 석독구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pp.115-181.
_____(1994), "신역 『화엄경』 권14의 고려시대 석독구결", 『국문학논집』 14, 단국대 국문과.
_____(1996a),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ㅱ/ㄹ'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 1집, 구결학회, pp.3-10.
_____(1996b), "『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에 나타난 ㅱ의 용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_____(1996c),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ㄱ/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pp.1-48.
_____(1997a),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ᄉᆞ자와 ᅀᆞ자의 원자에 대하여", 『어문학논총』(청범 진태하교수 계칠송수기념), 태학사.
_____(1997b), "한국에 있어서의 구결연구의 회고와 전망", 『訓点語と訓点資料』 100, 동경 훈점어학회.
_____(1998a), 『유가사지론』 권20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구결학회, pp.25-336.
_____(1998b), "『직지심체요절』의 구결에 대한 고찰", 『불교학논총』(월운스님 고희기념), 동국대학교부설 역경원.
_____(1999a),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태학사.
_____(1999b),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_____(2000a), "고려시대의 점토구결에 대하여", 『서지학보』 24, 한국서지학회, pp.5-45.
_____(2000b), "고려본 『법화경』의 점토 순독구결에 대하여", 『제23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_____(2001a), "구결의 종류와 그 발달", 제25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pp.55-58.
_____(2001b), "구결의 종류와 그 발달", 『한문고판본과 수용(훈독)』(일본북해도대학 워크샵 발표 논문집), pp.11-20.
_____(2002), "신라시대 구결의 재구를 위하여", 『구결연구』 8, 구결학회, pp.77-93.

_____(2002), "고려시대 각필점토 석독구결의 종류와 그 해독-진본화엄경 권20의 점토석독구결을 중심으로", 『조선학보』 183, 조선학회, pp.1-22.
_____(2003), "수덕사 소장 법화경 권7의 각필 석독구결에 대하여",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61-70.
남풍현 · 심재기(1976), "『구역인왕경』의 구결연구』(其一)", 『동양학』 6, pp.1-68.
남풍현 · 이승재 · 윤행순(2001c), "한국의 점토 구결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동경, 훈점어학회, pp.69-102.
박부자(2000), "정문연본 『永嘉證道歌』의 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6, 구결학회, pp.135-172.
박성종(1999), "구역인왕경 구결의 어휘, 『구결연구』 5, 구결학회, pp.201-220.
박진호(1996), "규장각 소장 구결자료 『능엄경』 2종에 대하여", 『구결연구』 1집, 구결학회, pp.73-94.
_____(1997), "차자표기 자료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117-145.
_____(1999), "구역인왕경 구결의 구문론적 양상", 『구결연구』 5, 구결학회, pp.189-200.
_____(2001),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특징", 『한문고판본과 그 수용(훈독)』, 북해도대학 국제 워크샵 논문집, pp.237-249.
_____(2003a),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에서 11위치의 단점에 대응되는 자토",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구두발표.
_____(2003b), "『주본 화엄경』 권제36 점토구결의 해독-자토구결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pp.211-248.
박희숙(1976), "불전의 구결에 대하여", 『김형규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사대 국어교육과.
_____(1978),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보이는 구결", 『논문집』 8, 관동대학교, pp.53-67.
백두현(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 ᄎᆞ와 ᄉᆞᆺ-그 독법과 문법기능, 『어문논총』 27, 경북어문학회, pp.125-153.
_____(1995a),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 '十'에 관한 고찰",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253-284.

_____(1995b),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ㅭ-'와 '-白-'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논총』 29호, 경북어문학회, pp.45-114.
_____(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ㅱ(오)-'의 분포와 기능", 『어문논총』 30, 경북어문학회, pp.93-136.
_____(1997a), "고려 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구결학회, pp.27-96.
_____(1997b),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ㅱ(오)-'에 대한 통사적 고찰-'-오-' 介在 구문과 非介在 구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3, pp.235-272.
_____(1997c), "고려시대 구결의 문자체계와 통시적 변천",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 태학사, pp.287-384.
_____(1997d), "차자 표기와 형태론", 『새국어생활』 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pp.99-116.
_____(1999),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경어법, 『구결연구』 5, 구결학회, pp.127-146.
서민욱(2001), "'者'자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pp.167-197.
심재기(1975a), "구결의 생성 및 변천에 대하여", 『한국학보』 1, 일지사, pp.2-22.
_____(1975b), "『구역인왕경』(상) 구결에 대하여", 『미술자료』 18, pp.19-35.
_____(1976), "장곡사 『법화경』의 구결", 『미술자료』 19, pp.40-50.
_____(1979), "{-ㄹ}동명사의 통사적 기능에 대하여", 『문법연구』 4, 문법연구회.
심재기 · 이승재(1998), 『화엄경』 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구결학회, pp.29-112.
안병희(1976a), "『동몽선습』과 구결", 『김형규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과.
_____(1976b), "구결과 한문훈독에 대하여", 『진단학보』 41, 진단학회, pp.143-162.
_____(1976c), "중세어의 口訣記寫 자료에 대하여", 『규장각』 1, 서울대 도서관, pp.51-65.

_____(1977),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_____(1987), "균여의 방언본 저술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pp.41-54.
유탁일(1977), "선초문헌에 쓰여진 불가구결", 『하서김종우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윤행순(1999), "한·일의 한문독법에 대한 비교", 『구결연구』 5, 구결학회, pp.33-58.
_____(2000), "일본의 오코토점과 한국의 초조대장경에 보이는 부호구결의 비교", 구결학회 제23회 공동연구회 구두발표논문.
_____(2001a), "한국의 부호구결과 일본의 오코토점에 대하여", 『한문고판본과 수용(훈독)』 일본북해도대학 워크샵 발표 논문집, pp.91-106.
_____(2001b), "한국의 부호구결과 일본의 오코토점에 대하여", 제25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pp.59-66.
_____(2003), "한문독법에 쓰여진 한국의 각필부호구결과 일본의 오코토점의 비교-『유가사지론』의 점토구결과 문자구결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pp.79-113.
이건식(1995), "향찰과 석독구결의 훈독말음첨기에 대하여",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pp.133-160.
_____(1996a), "컴퓨터 입출력을 위한 구결자의 코드체계에 대하 시론", 『구결연구』 1, 구결학회, pp.235-266.
_____(1996b),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조사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1997), "석독구결의 생략표기와 난해토의 해독", 『국어사연구』, 태학사, pp.1055-1090.
이동림(1982), "『구역인왕경』의 구결 해독을 위하여", 『논문집』 21, 동국대학교, pp.137-186.
이병기(1998),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 『구결연구』 4, 구결학회, pp.1-22.
이승재(1990), "고려본 『범망경』의 구결", 『애산학보』 9, pp.117-147.
_____(1993a),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 『국어학』 23, 국어학회, pp.325-380.
_____(1993b), "여말선초의 구결자료",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pp.56-76.
_____(1994), "고려 중기 구결자료의 형태음소론적 연구", 『진단학보』 78,

pp.317-326.
_____(1995a), "동명사 어미의 역사적 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pp.215-252.
_____(1995b), 『화엄경』 구결의 상태동사 어간",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_____(1995c), "차자표기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광복50년 국학의 성과와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337-366.
_____(1996), "고려 중기 구결자료의 주체경어법 선어말어미 '-ᄉᆞ(겨)-'", 『이기문선생 정년퇴임논총』, 신구문화사, pp.517-556.
_____(1997), "차자표기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pp.211-246.
_____(1998),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경어법연구", 『국어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pp.843-878.
_____(1999), 『구역인왕경』 구결의 음운사적 의의, 『구결연구』 5, 구결학회, pp.109-126.
_____(2000a),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권 3호, 국립국어연구원, pp.135-152.
_____(2000b), "초조본 『유가사지론』 각필 부호구결에 대하여", 제23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pp.59-69.
_____(2000c), "존경법 선어말어미 '-ᄒᆞ-/-ㅭ-[시]의 형태음소론적 연구-구결자료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0, 진단학회, pp.215-237.
_____(2001a), "周本 『華嚴經』 권제22의 각필 부호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pp.1-32.
_____(2001b), "『유가사지론』 각필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pp.229-250.
_____(2001c), "부호자의 문자론적 의의", 『국어학』 38, 국어학회, pp.89-116.
_____(2002a), "구결자료의 '-ㄱ-' 약화·탈락을 찾아서",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p.1-30.
_____(2002b), "부호의 자형과 제작 원리",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출판부, pp.61-78.
_____(2003), "각필 符點口訣의 의의와 연구 방법", 『구결학회·국어사자료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국어사자료학회, pp.55-69.

이승재 · 안효경(2002), "각필 부호구결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성암본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pp.115-145.

이 용(1999), "석독구결 선어말어미 '-ㅁ-'에 대하여, 『형태론』 1-1, 박이정.

_____(2003), "석독구결에 나타난 부정사의 기능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pp.249-274.

이장희(1995), "고려시대 석독구결문의 '-ㄴ-'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16, 문학과 언어 연구회, pp.103-120.

_____(1996a), "고려시대 석독구결문의 미정관형구성에 대하여", 『어문논총』 30, 경북어문학회, pp.137-150.

_____(1996b),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ᄉᆞ'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17, 문학과 언어 연구회, pp.1-14.

이전경(2001), "15세기 구결표기법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2), "각필구결 자료 『묘법연화경』 권1에 대하여", 제12차 국어사자료학회 학술발표대회(2002년 8월) 발표 원고.

이현희(1995), "'-아져'와 '-良訣'",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pp.411-428.

장경준(2001a), "석독구결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자의 문법적 기능에 대하여", 『국어 문법의 연구』(남기심 편) V, 태학사, pp.537-558.

_____(2001b), "석독구결 '故'자의 현토 경향에 대한 고찰(1)-자토석독구결 자료 5종을 대상으로-", 『구결연구』 7, 구결학회, pp.113-134.

_____(2002a), 『유가사지론』 각필 구결에 대한 관견, 구결학회 월례 강독회 원고(2002.2.23).

_____(2002b),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기입된 구결자와 대응 구결점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9집, 구결학회, pp.205-225.

_____(2002c), "구결점의 위치 변이에 대한 기초 연구", 『국어사자료연구』 3호, 국어사자료학회, pp.5-30.

_____(2002d), "『유가사지론』의 점토에서 구결자 'ㅎ, ㅅㄱ'에 대응되는 단점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몇 가지 근거",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11) 논의 자료.

_____(2003a), "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구결점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pp.227-247.

_____(2003b),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지시선'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pp.159-177.

_____(2003c),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111-122.

장윤희(1997), "석독 구결 자료의 명령문 고찰", 『구결연구』 2, 구결학회, pp.97-130.

_____(1998),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구결연구』 4, 구결학회, pp.57-84.

_____(1999), 『구역인왕경』 구결의 종결어미, 『구결연구』 5, 구결학회, pp.165-188.

_____(2003), "한국 석독구결의 종합적 고찰", 『일한 한자·한문 수용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자료집), pp.57-90.

정경주(1982), "『中庸大學章句講譜』의 구결연구", 『어문학교육』 5, 부산국어교육학회, pp.203-226.

정영숙(2001),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사에 대하여", 제25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pp.67-76.

정재영(1995a), "'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pp.285-316.

_____(1995b),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25, 국어학회, pp.221-266.

_____(1996a), "순독구결 자료 『범망경보살계』에 대하여", 『구결연구』 1, 구결학회, pp.127-234.

_____(1996b), "종결어미 '-쇼'에 대하여", 『진단학보』 81, 진단학회, pp.195-214.

_____(1997a), "'-오-'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pp.601-644.

_____(1997b), "차자표기 연구의 흐름과 방향", 『새국어생활』 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pp.31-60.

_____(1998a), "고려시대의 {-이} 부사와 부사형", 『국어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pp.737-784.

_____(1998b),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

연구』 3, pp.113-194.
_____(1999), "선어말어미 '-內-','-飛(ㅌ)-'와'-臥(ㅏ)-'—고대국어 선어말어미 '-ᄂᆞ-'와 그 변화-, 제21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 구결학회, pp.63-89.
_____(2001),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진본 『화엄경』 권20에 대하여", 『구결연구』 7, pp.33-56.
_____(2002), "선어말어미 '-ㅓ-(-겨-)에 대하여",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 출판부, pp.335-361.
조은주(2001),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pp.135-166.
_____(2003), 『전기 중세국어의 부정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천소영(1992), 「차자표기」, 『국어학연구백년사』 II, 일조각.
최범훈(1972), "「구결」 연구", 『국어국문학』 57-58, 국어국문학회, pp.519-533.
_____(1979), "『孟子集註』의 혼성구결에 대하여", 『청주사대논문집』, 청주사범대학, pp.1-20.
_____(1982), "『書釋』의 특수구결에 대하여", 『경기대논문집』 11, 경기대학교.
최은규(1993),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의 구결에 대하여",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pp.660-689.
한상화(1994), 『기림사본 능엄경구결의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윤표(1986), "근대국어 省劃吐에 대한 연구,-『소학제가집주』를 중심으로", 『동천 조건상선생 고희기념 논총』, pp.357-379.
황국정(2000), "석독 구결의 두 관형사절에 대해", 『구결연구』 6, 구결학회, pp.281-342.
_____(2001), 석독구결의 '-ㅈ+ㅅ-' 구문에 대하여, 제25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pp.1-24.
황선엽(1996), "一簑文庫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 『구결연구』 1, 구결학회, pp.95-126.
_____(2003), "구결자 'ㅂ'의 해독에 대하여,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pp.115-142.

菅野裕臣(1981), 「口訣硏究(1)」, 『東京外國語大學論集』 31, pp.31-60.

藤本幸夫(1992), “李朝訓讀攷 其一”, 『朝鮮學報』 143, 朝鮮學會, pp.109-218.
_____(1993), “韓國의 訓讀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pp.642-649.
藤井茂利(1980), “ソウル大學藏『禮記集說大全』に付せられた略體漢字の「吐」について”, 『鹿兒島大學人文學科論集』 15.
石塚晴通(1996), “アジア諸民族に於ける漢文の訓讀”, 『제1回 아시아제민족의 문자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_____(2001), “한자문화권의 가점사에서 본 고려구결과 일본어초기훈점자료”,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pp.73-79.
_____(2002), “한자문화권의 가점사에서 본 고려구결과 일본어초기훈점자료”, 『구결연구』 8, 구결학회, pp.111-128.
小林芳規(2001),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pp.15-52.
_____(2002a),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구결연구』 8, 구결학회, pp.21-76.
_____(2002b),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朝鮮學報』 182, 朝鮮學會.
_____(2003a),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 大谷學報 82卷 2號, pp.58-88.
_____(2003b), 新羅經典에 記入된 角筆 文字와 符號 -京都·大谷大學藏『判比量論』에서의 발견-,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pp.5-30.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韓國遺存の角筆文獻 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訓點語學會, pp.36-68.
中村完(1977), “『朝鮮版地藏經菩薩本願經』における吐の形態について”, 『東北大學文學部硏究年報』 27.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29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E-mail: JUNGEUIKO@hanmail.net
접수일자: 2003. 12. 18.
게재결정: 2004. 01. 16.

A review of the study on Kugyol(口訣)

Ko, Jung Eui

From a long time ago in Korea the loan-word transcription system(借字表記法) has been developed. Among those, Kugyol is usually classified into Sundok-kugyol(順讀口訣) and Seokdog-kugyol(釋讀口訣) according to its reading method. Sundok-kugyol is a method of reading Chinese texts in accordance to the original text by putting the grammatical particle(吐) in place of the phrase. It is presumed to be originated around the 12th century, but the Sundok-kugyol itself introduced by the documents of the 13th century and they are still used today. On the contrary Seokdog-kygyol is a method of reading Chinese texts by rearranging them according to the Korean word order. It was first introduced with the discover of the Kuyok-inwang-kyung(舊譯仁王經) in 1975, and now 5 types of materials show its existence. A lot of studies were made concerning the character system and the phonemics or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ose materials but there are still a lot of mysteries of the language not solved yet.

On early July 2000, a new type of Seokdog-kugyol was discovered. It is written in Kakpil(角筆) and this is called Jeomto-seokdog-kugyol(點吐釋讀口訣). These materials show us the ancient

Korean language of the 11th century, at present we have 12 books showing it. The Jeomto-kugyol(點吐口訣) usually indicates its sound and form by marking dot or line, etc., but its standard is the singlepoint. According some studies of the materials it was possible to make out a report classifying the matrix of singlepoi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aterial. However there is still a difference of interpretation and methodology according to the researcher.